



미야기현의 블루 플래그 비치 (BLUE FLAG BEACH) 인증과 지속 가능한 관광을 향한 로드맵

2023년 6월, 일본 북동부 도호쿠 지역의 한 해변이 블루 플래그 (Blue Flag) 인증을 획득해 국제적으로 청정한 환경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바다를 누구나 즐길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2011년 3월에 발생했던 대지진 이후, 지역을 사랑하여 환경을 보존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던 이들의 노고 덕분에 이뤄낸 쾌거입니다.

미야기현의 (문자 그대로 일본어로 “일곱 개의 해변”을 의미하는) 시치가하마 (Shichigahama)는 일본 도호쿠 지역의 동부 해안을 따라 바다 쪽으로 돌출된 반도에 자리 잡은 시정촌입니다. 시치가하마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 이름이 유래한 것처럼 일곱 개의 해변을 품고 있습니다. 해변은 제각각 주변에 형성된 촌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7개의 해변 중 하나인 쇼부타 (Shobuta) 해변에는 1888년에 첫선을 보인 유서 깊은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이

는 도호쿠 최초이자 일본에서 세 번째로 개장한 해변 휴양지입니다. 2023년 6월에 블루 플래그 인증을 받은 곳도 바로 이 해변입니다. 블루 플래그 인증은 전 세계에서 수여하는 국제적인 환경 인증입니다. 덴마크에 본부를 둔 국제 NGO 환경교육재단 (FEE)은 유엔환경계획 (UNEP), 유엔세계관광기구 (UNWTO)와 협력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블루 플래그 지정



고코 아키텩구 씨는 미야기현 중남부의 무라타마치 출신입니다. 2011년 지진 당시 그는 약 700km 떨어진 아이치현에서 근무 중이었으나 시치가하마로 이주하여 재건 활동을 돕는 자원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시치가하마마치 관광협회 직원으로 입사한 것은 재해 생존자를 지원하는 NPO 단체에서 근무하고 나서였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블루 플래그 (Blue Flag) 인증 획득과 더불어 블루 투어리즘을 촉진하는 활동이 일본 내 다수 지역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블루 투어리즘은 지속 가능한 관광의 하나로, 연안 지역의 자연경관과 어업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치가하마마치 관광협회의 고코 아키텩구 (GOKO Akitsugu) 씨는 시치가하마의 블루 투어리즘 캠페인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고코 씨는 “시치가하마가 해변 마을이다 보니 바다의 현재 상태와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과제를 주민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고, 관광협회로서 우리 자신도 더 많이 배워야 하겠다고 느꼈습니다. 블루 플래그의 철학과도 잘 맞아 떨어지는 아이디어였죠.” 라고 언급했습니다.

어떤 해변이 블루 플래그 해변으로 인증받으려면 환경 교육 및 정보, 수질, 환경 관리, 안전 및 서비스 등 4개 영역에서 33 가지에 달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쇼부타 (Shobuta) 해변은 정기적인 수질 검사, 신체장애인용 시설 제공, 외국어 표지판 설치 및 방송 제작 등을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한 덕분에 불과 1년 만에 블루 플래그 (Blue Flag) 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해변에는 수영뿐만 아니라 서핑, 보디보딩과 같은 해양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 많고 요트와 철인 3종 경기 대회도 수시로 개최됩니다. 해안에서는 마쓰시마 경치를 즐기는 패러글라이더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다도해가 펼쳐진



위: 시치가하마의 타몬잔 산 (Mt. Tamonzan)에서 본 마쓰시마. 바다를 따라 약 260개의 섬이 늘어서 있는 이곳 풍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을 매료시켜 왔습니다. 우측: 예전의 시치가하마는 숲이 우거진 나가노 현 가루이자와 (Karuizawa)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여름 휴양지였습니다. 지금은 같은 지역에 시치가하마 국제 마을이 조성되어 콘서트, 무대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마을의 문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쳐진 눈부신 풍경으로 찬사를 받는 마쓰시마 (Matsushima)는 일본의 3대 절경으로 꼽히는 관광지입니다. 쇼부타 해변에는 최상품 해초를 비롯해 다양한 제철 해산물이 가득하며 특히 해조는 왕실의 소유물로 지정될 만큼 품질이 우수합니다. 도호쿠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인 센다이 (Sendai)에서 차로 불과 30분 정도 거리에 있지만, 시치가하마는 도시와는 대조적으로 풍부한 자연의 아름다움이 잔잔하게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고코 씨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사실 그는 시치가하마 출신이 아닙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처음 마을에 오게 된 고코 씨는 재난 생존자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정신 건강을 돌보는 사업을 도왔습니다. 고코 씨는 “어떤 사람들은 재난 경험을 이야기하며 흐느꼈고, 자원봉사자들과 헤어지며

심적 고통을 호소하는 아이들도 봤습니다. 일시적인 관계를 넘어서 그 이상으로 발전하고 싶어서 자원봉사 활동을 꽤 오랫동안 연장했고 이제는 재난 생존자들과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비록 마을 규모는 작지만 시치가하마 주민들의 자부심은 훨씬 대단합니다. 주민들은 지역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진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재건에 성공한 것이겠지요. 제 생각엔 그게 이 도시의 매력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블루 투어리즘으로 많은 분이 시치가하마를 발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덧붙입니다.

시치가하마 주민들은 지진 피해를 극복하고 바다의 아름다움을 보호 및 계승하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획득한 블루 플래그는 그 여정에서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